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재한



지난 4월 23일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들은 지난 4·11총선 결과를 놓고 연말 대선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4·11선거의 결과를 '황금 분할'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는 대통령선거는 어떤 결과가 되어야 황금 분할인가?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선거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소가 말한 '일반 의지'와 같은 유권자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4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서로 조율해서 의도대로 황금 분할을 만들어 내기는 불가능하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 모두의 뜻을 합성한 결과일 뿐이다.

둘째, 특정 정당이 승리하고 다른 특정 정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들이 선거 후 많아졌는데, 오는 대통령선거 결과도 그렇게 잘 알 수 있는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패배할 줄 그렇게 잘 알았더라면 왜 선거 전 미리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패배한 정당의 지도부는 반문

할 것이다.

선거 전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요인들이 선거 후에는 승리 요인 아니면 패인이 되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잘못된 원인 분석이 많다. 사후 합리화뿐 아니라 틀

는다면 그 비유대로 표도 나눠 가진다.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강원과 울산에서 100% 의석을 가져갔지만 정당득표율은 절반에 불과했다. 반면에 서울에서 새누리당은 의석을 3분의1만 차지했지만 정당득표율은 절반이 되고 운운되며 해체된다. 천막 당사가 지지도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정치문화이다. 안철수 바람으로 보듯이 기성 정당과 관계 없는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성 정당은 바람 부는 초원의 천막에 불과해서 누구나 천막을 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시아와 뜨내기 사기꾼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들은 좌우 스펙트럼 대신에 선악 스펙트럼을 갖고 나타난다.

기성 정치인은 자기 물을 퍼내거나 자기 불을 피우기 위해, 그 바람을 마주물이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 하기도 한다. 폼프가 새거나 팜프질이 약하면 마주물이 있다고 해도 큰 물을 퍼낼 수 없고, 태울 연료가 많지 않으면 쏘시개가 있다고 해서 큰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대선에서 반칙이 난무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경정이 되려면 언론의 수준 높은 관건정도 필요하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는 매우 짧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자유선진당은 4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 정당은 들뢰즈가 말한 탈근대적 '유목' (游牧) 개념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정주형과 반대되는 유목형이다.

'뗏다방'이나 '천막 정당' 식으로 창당되고 운영되며 해체된다. 천막 당사가 지지도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정치문화이다. 안철수 바람으로 보듯이 기성 정당과 관계 없는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성 정당은 바람 부는 초원의 천막에 불과해서 누구나 천막을 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시아와 뜨내기 사기꾼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들은 좌우 스펙트럼 대신에 선악 스펙트럼을 갖고 나타난다.

기성 정치인은 자기 물을 퍼내거나 자기 불을 피우기 위해, 그 바람을 마주물이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 하기도 한다. 폼프가 새거나 팜프질이 약하면 마주물이 있다고 해도 큰 물을 퍼낼 수 없고, 태울 연료가 많지 않으면 쏘시개가 있다고 해서 큰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대선에서 반칙이 난무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경정이 되려면 언론의 수준 높은 관건정도 필요하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분석 유감

린 선거 전망도 있었다. 특정 지역을 야도(野道)로 단정한 주장이나 엄청난 비용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라 생각하는 것 대신에 남들이 지역적으로 투표하니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4월 선거의 결과가 12월의 선거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한국 정치에서 8개월이면 지지도 등락이 수차례 반복될 수 있는 긴 기간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정당들은 '정주' (定住)형이며, 주요 정당 후보가 아닌 무당파 후보가 당선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우리 대통령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60%와 40%의 득표율을 얻

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두 후보는 각 지지부를 따로 따로 투표하게 유도할 수 있다. 그 지도를 보는 유권자들은 더 이상 지역색으로 투표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남들이 지역적으로 투표하니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4월 선거의 결과가 12월의 선거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한국 정치에서 8개월이면 지지도 등락이 수차례 반복될 수 있는 긴 기간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정당들은 '정주' (定住)형이며, 주요 정당 후보가 아닌 무당파 후보가 당선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우리 대통령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60%와 40%의 득표율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두 후보는 각 지지부를 따로 따로 투표하게 유도할 수 있다. 그 지도를 보는 유권자들은 더 이상 지역색으로 투표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남들이 지역적으로 투표하니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와 달리 우리 대통령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60%와 40%의 득표율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두 후보는 각 지지부를 따로 따로 투표하게 유도할 수 있다. 그 지도를 보는 유권자들은 더 이상 지역색으로 투표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남들이 지역적으로 투표하니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의로 칼럼



정명호

요즘과 같은 봄철은 순환기내과 의료가 필요한 때보다 긴장하고 지내는 날이 많다. 평소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런 심뇌혈관계 이상 증상이 덩으로 생겨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질병이 동반되면 그만큼 사망위험도 높아져, 더욱 주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은 '생명이 움트는 봄철이 순환기내과에 있어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계절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봄철 진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심혈관질환은 단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다. 두 질환은 각기 세계적인 발병률을 보이는

만성질환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쌍둥이 질환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닮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환자의 절반 가량(49.7%)이 고지혈증, 고지혈증 환자의 절반 가량(48.3%)이 고혈압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년층 이상은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환자도 반드시 쌍둥이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발병 원인이 매우 유사하다.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잘못된 식습관, 비만, 흡연 등이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며, 두 질환 모두 자각증상이나 고통이 따르지 않아 방심하다 뒤늦게 치료받는 경우도 많다.

두 질환의 가장 무서운 공통점은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합병증이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해 심뇌혈관 사망률을 높이

고혈압·고지혈증, 둘 다 잡으려면

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더 위험한 질병을 불러들여 인체를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리는 셈이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해 혈압과 혈중지질수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두 질환의 통합 관리와 치료다.

해의 최신 치료지침에서는 혈압 및 혈중지질 등의 위험인자가 함께 증가하면 두 질환의 상승작용에 의해 심혈관계 위험이 개별 질환의 위험을 더한 것보다 높아진다고 보고, 동반된 심혈관계 질환 관리를 위해 초간단단계부터의 치료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쌍둥이 질환 중 한 가지를 지닌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통해 통합적인 치료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

쌍둥이 질환의 통합 치료는 약물로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오래된 기간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을 결합한 복합제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고지혈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제를 하나로 합친 복합제는 각 치료제를 따로 복용할 때보다 쌍둥이 질환의 두 가지 목표 수치가 모두 도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정제를 하루에도 여러 번 챙겨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하루 한 번만 복용함으로써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저렴한 약값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게 돼 결국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즉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한 알로 된 복합제가 복용하기도 쉽고 약값도 싸며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피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저염식, 저지방식 등 식이 조절을 반드시 병행해야 쌍둥이 질환이 가져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장·전남대 순환기내과 교수)

기고



안기석

오늘날 도시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방자치체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 급격한 세계화로 인한 도시 간의 경쟁은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에게 생존을 위한 차별화를 모색하게 했으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브랜드가 제시되고 있다.

도시브랜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곳은 스페인의 발바오이다. 무더운 광산의 도시였던 발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났다. 인구 35만인 이 도시에 1997년 한 해에만 13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2007년까지 총 986만 명이 찾았다고 한다. 10년

동안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무려 2조 1000억 원에 이른다.

뉴질랜드는 '100% Pur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국적인 문화와 장엄하고 순수한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로 차별화에 성공했으며, 싱가포르의 지난 2004년 800여 명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유니클리 싱가포르 (Uniquely Singapore)' 캠페인을 통해 관광객이 36% 이상 증가했다.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볼 때 '광주' 역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광주는 민선 5기 들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국제도시 광주'라는 브랜드를 위해 큰 결집들을 내댛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최근 2014국제관계배우위원회 총회와 2013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IAC) 개최가 확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한상

'국제도시 광주' 브랜드 뚝다

대회,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세계수염성수권 대회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자문회의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기록유산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세계기록유산 목록 등재 최종심의 등을 의제로 2년마다 열린다고 기대된다.

내년에 열리는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는 위원과 각국 기록유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5·18민주화운동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관계배우위원회는 3년마다 세계 주요도시에서 총회를 개최해 배우관계 관련 학술회의와 전시회, 문화이벤트 및 심포지엄이 있다. 2014년 총회는 9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100여 개 국가에서 7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세계한상대회의 내년 유치를 추진 중이다. 세계한상대회의는 세계 각지의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참여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큰 행사로, 올해까지 모두 11차례 개최됐으면서도 호남에서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5년 열릴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제디자인연맹 총회는 세계산업디자인협회, 그래픽디자인협회, 건축디자인협회가 연맹을 만들어 세계 내로라하는 3500~4000여 명의 디자이너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시는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글로벌 시대에 굴적한 국제대회 유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큰 만큼 도시간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세계김치축제,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등을 치른 'Gwangju Metropolitan City'는 세계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도시 이름이 아니다. 여기에 지구촌이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또 다른 행사와 성공적인 개최는 광주가 국제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대변인)

기생충알 득실거리는 놀이터 모래 정기적 검사 필요

요즘 TV에서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기르다 버린 개를 구출해 제대로 치료하고 살리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집에서 버려진 개가 험하고 굶주려 거의 살아있는 사체를 연상케 할 만큼 바짝 마르고 온갖 질병이 피부 등에 만연해 보이지만

해도 불결하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유기견들이 전염병을 안은 채 집 주변 골터에 아이들이 노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을 오가면서 배설을

해놓아 전염병을 옮긴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는 회충, 요충 등 기충 알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요충뿐만 아니라 유기견과 고양이 의 회충알도 득실거린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그렇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기생충들은 아이들의 체내에 들어갈 경우 설사를 일으키고 간과 폐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단지 내 놀이터 모래에 이런 기생충 알이 득실거리는 이유는 놀이터에

방치돼 있는 개나 들고양이의 배설물들이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돌아온 어린이들에게는 기생충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 목욕을 시키고 손가락을 빨지 못하게 하는 게 좋고 이 하나 주부들이 더욱 신경 쓰셔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건 광주시 각 보건소에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모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주는 일이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정기적으로(특히 여름철 등 날씨가 따뜻해서 전염 위험이 큰 계절에) 소독을 해줄 수는 없을까.

▲남민대·광주시 광산구 교통동

시설

광주 문화진흥지구 효과 기대 밝히려니

광주시가 추진 중인 문화산업투자 진흥지구의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지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부(富)와 고용을 선도, 문화수도도 자리매김하겠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 12월 문광부로부터 CGI센터와 아시아문화전당 권역 등 4곳을 전국 첫 진흥지구로 지정받아 문화산업 중심지로 육성기로 했다. 세계 각국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 오는 2014년까지 문화콘텐츠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문화산업 관련 기업 신설 및 유치실적은 27개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예비창업자로, 사업 등록조차 안돼 사실상 유치실적은 21개에 불과한 셈이다.

고용 효과도 미미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문화콘텐츠기업 3개 사와 투자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700여 명의 고용을

예상하며 기대에 부풀게 했다.

그러나 27개 전체 입주기업의 고용인원을 합해도 32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중 38명이 타지 사립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는 더 낮아진다. 광주시의회 임동호 의원은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민선 5기 강준대 시장의 핵심공약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가 애초 진흥지구 지정에 공을 들인 것은 문화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낙후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였다. 그럼에도 지구 지정 이후 1년이상 지난 현재까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는 것은 그 취지나 의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는 진흥지구 지정으로 끝낼 게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와 각종 지원으로 문화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수도 광주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지 않겠는가.

허울뿐인 광주시 전기차자동차 선도도시

지난해 11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광주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기차는 물론 충전기 설치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국비 등 23억 원을 들여 전기차 42대, 충전기 43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

은 상태다. 시는 당초 오는 2014년까지 자동차 300대, 충전기 320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선도도시로 결맞은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구입 자금 6억2300만 원, 충전기 설치 5억9700만 원 등 총 1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42대, 올해 40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내 전기차 생산업체가 경영난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기차 구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비 12억여 원도 전액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면 서 전기차 사업이 초기부터 결투고 있

는 것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미 구입분과 올해까지 차량 80대 이상을 구입해야 하지만 활용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7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민간분야의 중·장기적 로드맵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사업이 어떻게 차질을 빚게 된 데는 무엇보다 광주시의 안이한 행정 탓에 있다. 시는 전기차 생산업체가 신규 투자유치 및 기업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무한정 기다리는 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업체는 현재 상황이 폐지된다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전기차 사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기차 대여 시스템인 '오토리브' 등을 벤치마킹해 활용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 안이한 행정은 안 된다.

無等鼓

일본 학자들이 1950년대 고지마(幸島)지역의 야생 원숭이들이 흠이 묻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지 관찰했다. 처음 원숭이들은 손으로 흠을 털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후 18개월 된 암컷 원숭이가 고구마를 갈통에 넣어 먹기 시작했다.

그 후 18개월 원숭이 또래와 이미 원숭이도 고구마를 씹어 먹었고 이런 습관은 다른 어린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를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이 든 원숭이와 대다수 수컷들은 씹지 않고 고구마를 먹었다.

그러다 고구마를 씹어 먹는 원숭이가 100마리라는 일제점에 도달하자 고지마의 모든 원숭이가 고구마를 씹어 먹게됐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카자키야마(高崎山)의 원숭이까지 고구마를 씹어 먹었다.

저명한 동식물학자인 라이얼 왓슨은 이러한 행동을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명명했다. 이후 이 용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 수준 이르면

그 행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현상에 쓰이고 있다.

어떤 조직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서는 안된다. 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 내 영구 문화로 내재화 될 때 의미가 있다. 또 어떤 조직이라도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나이 먹은 숫컷 원숭이' 세력

100번째 원숭이 효과



하지만 변화를 선도하는 '어린 암컷 원숭이'도 존재한다. 당장 가시적 성과를 바라는 리더의 조급증은 혁신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를 선도할 어린 암컷 원숭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를 이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원숭이가 고구마를 씹어 먹게됐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카자키야마(高崎山)의 원숭이까지 고구마를 씹어 먹었다.

저명한 동식물학자인 라이얼 왓슨은 이러한 행동을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명명했다. 이후 이 용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 수준 이르면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復庚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린책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출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